



2016년 02월 4주차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워크숍 실시

- 일 시 : 2016년 02월 15일(月)~16일(火)
- 내 용 : 2016년 새해를 맞아 연구원 홍성덕 부원장과 사무국 실무자들이 경남 통영과 거제에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통해 2016년 예정 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 이사회 실시

- 일 시 : 2016년 02월 20일(土) 18시
- 내 용 : 2016년 정기이사회가 오는 02월 20일(土) 18시부터 서울 대청역 인근 남도마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사업에 대한 평가와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연구원의 도약을 위해 이사회는 재정과 사업에 보다 견고한 결합을 다짐해주셨습니다.



○ 제5회 GHS 월례강좌 실시

- 주 제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강 사 :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 일 시 : 2016년 02월 20일(土) 15시
- 장 소 : 글로컬 아카데미 사무국 세미나실(7호선 보라매역 부근)
- 내 용 : 작년에 촉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하여 강의가 1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2월 20일로 연기되어 실시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볍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교과서 국정화가 지니는 의미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 회원 소식

○ 박해성 회원 장녀 혼인

: 박해성 회원의 장녀 박현정 양의 혼인이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함께 축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6. 03. 19(토)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신도림 웨스턴베니비스 7층 다이너스티홀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신도림테크노마트 7층)

○ 윤상원 회원 교수 임용

: 연구원의 회원이자 부설연구소 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GHS)의 운영위원인 윤상원 회원이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곧 전주로 이사할 예정이니 좀 더 가까워서 더 자주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2월 22일(月) : 주간회의
- 02월 23일(火) : 기관지 발송작업
- 02월 25일(木) : 5·18기념재단과 업무협약체결

■ 옛 詩와의 만남

春曉 봄날 새벽에

春眠不覺曉 게으른 봄잠에 새벽이 언제 왔나?
處處聞啼鳥 곳곳마다 들려오는 새 울음.
夜來風雨聲 어젯밤부터 비바람 소리 났으니
花落知多少 꽃송이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 작자 소개

- 맹호연(孟浩然; 689~740). 성당(盛唐) 때의 시인. 왕유(王維)와 더불어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주로 노래하여 '왕맹(王孟)'으로 함께 일컬어진다. 평생 동안 녹문산(鹿門山)에 은거하였는데, 이백과 두보에게 스승으로 존경을 받았다.

■ 감 상

- 평생을 포의(布衣)로 살면서 벗어날 수 없는 가난 탓에, 다리 저는 나귀를 타고 다니던 시인이 맹호연이다. 그는 절름발이 나귀를 타고 언제나 친구와 술과 달을 찾아다녔다. 특히 추운 봄날에도, 맹호연은 늘 자신이 사랑하던 매화를 보기 위해 눈 덮인 산을 찾아가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탐매도(探梅圖)」 혹은 「심매도(尋梅圖)」로 불리는 정형화된 그림의 원형으로 남게 되었다.

이토록 꽃을 좋아하던 맹호연이 어느 봄날 늦잠에서 깨어났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새 울음에, 새벽을 지난 늦은 아침 그의 잠이 깬 것이다. 본래 새란 맑은 날씨에만 우는 법이니, 그렇다면 오늘 아침은 날이 갠다는 말인가? 어젯밤부터 비바람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비바람에 얼마간의 꽃잎이 졌을 터인데.....

그러나 나른한 봄날의 게으른 늦잠이 그의 발목을 잡는다. 꽃이 얼마나 졌을까 하는 궁금증보다도, 아직까지 이불에 남아있는 따듯함이 더욱 좋기 때문이다. 봄날 아침의 싸늘한 기온보다는, 마냥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며 이불 속의 온기를 즐기고 있는 노시인의 천진함이 절로 미소를 불러오는 작품이다.